

소외 계층 위한 훈훈한 자비행 이어져

호남지역 사찰·단체들 다양한 나눔 행사 개최

초가를 날씨를 훈훈하게 하는 호남지역 불교단체들의 자비행이 눈길을 끈다.

사단법인 착한벗들(이사장 회일)은 9월 27~28일 전주에서 전북지역 내 결혼이주 여성과 차상위계층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나눔바자회를 개최했다. (사)착한 벗(이사장 회일, 참총은 우리절 주지)이 '즐거우나눔, 함께하는 행복'이라는 주제로 마련된 나눔바자회는 3000여 명의 전주 시민과 불자들이 행사장을 찾았다. 이날 바자회에는 (사)착한벗들의 한국사회문화이해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들이 직접 만든 '차남'이라는 베트남어는 내방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사)착한벗들에서는 전주시자원봉사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기존의 결혼이주여성들의 사회활동 지원과 더불어 명상, 연극, 음악을 활용해 아동, 청소년들의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업스트레스와 미디어 중독을 완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나 더하기 너는 우리(가게)'라는 전문교육 프로그램 마련하여 오는 11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회일 스님은 "자비행을 실천하는 것은 불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덕목이고 나아가 복덕을 쌓는 첩경이다"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불자들이 자비행의 원력을 세워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년소녀가장들과 환우들을 위한 사찰 문화행사도 다채롭게 개최됐다.

화순 도원사(주지 진철)는 10월 2일 도원사 야외음악단에서 개원 7주년 기념 산사음악회를 개최하고, 청소년가장 8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올해 4회째 개최되는 이번 음악회에는 선각종 총무원장 정암 스님을 비롯해 종단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초청 가수 음악회와 1080연등불사, 신도노래가량이 개최됐다.

음악회의 시작은 모후산 풍물단의 지심 밭기를 시작으로 초청가수 신바람 이바사,

9월 27~28일 이주민 바자회

9월 28일 소아암환우 돕기 음악회

10월 2일 소년소녀가장 음악회

조찬찬, 정현, 정주호, 이서경, 국악살롱이, 광주난타 등의 공연이 이어졌다. 또한 참가한 청소년가장과 신도들에게 경품이 선사됐다.

주지 진철 스님은 인사말에서 "정명한 가을에 청소년가장들과 이웃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음악회를 개최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도원사는 개원 7주년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지역주민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실천하는 도량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선각종 총무원장 정암 스님은 축사를 통



선각종 총무원장 정암 스님(사진 왼쪽)이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착한 벗들이 개최한 나눔바자회에서 베트남 요리를 선보이는 결혼 이주민 여성들.

해 "청소년 가장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과 가정생활을 꾸려나가는 데 사찰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을 통해서 구현되어야 진정한 의미 수행"이라고 강조했다.

화순 만연사(주지 자광)도 지난 9월 28일 경내 잔디광장에서 '소아암 환우돕기 일어나 함께가자'라는 주제로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음악회에는 가수 김원

중, 재은옥, 박강의, 만연사 합창단이 출연해 고즈넉한 가을 노래로 산사를 찾은 500여 대중들에게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했다. 자광 스님은 "작은 정성이 십시일반 모여 소아암백혈병으로 투병중인 환우들에게 큰 믿음과 희망이 될 것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산사음악회의 수익금은 전액 백혈병환우들의 치료비로 전달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원효사 '사랑의 밥차', 생명나눔의 새 시도



사랑의 밥차 행사 이후 장기기증에 동참하는 장병들의 모습

군 장교들을 위한 사랑의 밥차가 진행됐다. 광주 원효사는 생명나눔실천광주전남본부(본부장 현지, 원효사 주지)와 공동으로 9월 29일 전남 장성 상무대 군법당(법사 금정)에서 '사랑의 밥차 및 생명나눔 장기기증과 헌혈증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의 불교단체인 자비신행회와 후원 업체인 차이나궁의 협찬으로 국군 장병 300여 명에게 자장면 보시가 진행됐으며 생명나눔 홍보도 진행됐다.

이날 현지스님은 인사말에서 "국토방위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군 장병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의미를 담아 음식을 마련했

다"고 말했다.

행사에서는 사랑의 밥차 외에도 백혈병 환우들의 현황과 장기기증, 조혈모세포 등록사업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22명의 장병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완료했다.

상무대 금정 군법사는 "많은 사찰들이 늘 군 장병들에게 도움을 주어 감사하다"며 "한국의 미래인 젊은 장병들에게 불교 대중들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한편 원효사는 이날 외에도 매년 정기적으로 나눔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어르신들이 사진작가로... '2013 서원 사진전'



서원노인복지관 2013 사진전에 동참한 어르신 작가들과 보은 스님(왼쪽 네번째)

사회복지법인 조계종 금산사복지원에서 위탁운영하는 서원노인복지관(관장 보은)은 사진강좌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작품을 전시하는 '2013 서원사진전'을 9월 27~30일 전북교육문화회관 제1전시실에서 개최했다.

'인생의 황혼을 빛으로 말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에는 관장 보은 스님의 사진작품을 비롯해 1년 동안 사진반을 지도해온 김경섭 스튜디오 맑음 대표의 작품과 사진반 어르신들의 작품 30여 점이 전시됐다. 작품은 주로 전주 덕진공원, 대둔산, 진안 마이산, 담양 소쇄원등지로

어르신들이 직접 출사를 나가 촬영한 '생명의 숲', '옥정호의 아침', '한희 등이다'.

이번 사진 전시회는 어르신의 삶에 대한 의욕과 배움의 열정을 증진하고 적극적인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로 기획됐다.

보은 스님은 "사진전시회는 배움을 통한 사회참여활동 기회를 경험함으로써 모범적인 어르신의 상을 전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어르신들이 열심히 배운 사진작품 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이어갔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꽃무릇과 함께하는 가을의 향연

선운사 제6회 선운문화제 성료, 보은염 이운식 등 진행

꽃무릇이 산하를 붉게 물들이고 있는 선운사에서 '제6회 선운문화제'가 개최됐다. '꽃무릇과 함께하는 선운사의 가을'이라는 주제로 열린 선운문화제는 보은염 이운행사를 시작으로 국악인 김성년 등이 출연하는 산사음악회, 꽃무릇 시화전, 정미선 초대전 - '사계', 지장보살 특별전, 동자승 초대전 등의 다채로운 문화행사로 꾸며졌다.

또 지장보궁에서는 방곡사 회주 묘허 스님의 특별법회 '아름다운 지장신앙'이 열렸다. 이와 함께 1500년 전 양민들에게 소금굽는 법을 일러준 선운사 창건주 검단 스님의 은덕에 보답하기 위해 해마다 양질의 소금이 생산되는 봄과 가을이면 은혜를 갚는다는 의미의 '보은염(報恩鹽)'을 선운사 부처님께 공양올리는 검단리 주민들이 보은염 이운식을 재연했다.

'김성년과 함께하는 꽃무릇 산사음악

회'는 국악인 김성년과 선운사 합창단, 전북도립국악관현악단, 방수미, 이항운, 동남풍등이 출연해 깊어가는 가을 우리전통 국악의 진수를 보여줬다. 이밖에 만세루에서는 꽃무릇 시화전이 열렸고 고창지역 농산물과 보은염등의 특산물을 판매하는 나눔장터도 열렸다.

한편, 선운사 지장보궁에서는 전국의 지장법회를 전시는 특별전이 11월 17일까지 열린다. 또 정미선 초대전 '사계'가 10월 10일까지, 정민현 동자승 전이 10월 19일부터 11월 17일까지 경내 일대에서 열린다.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은 "언제나 지역과 함께 해온 선운사는 이번에도 지역 주민과 불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문화제도 즐기고 절정에 이른 꽃무릇도 감상하면서 몸과 마음을 쉬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고창군사회복지시설, 복운 경로의 날 행사

선운사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고창군 사회복지시설(관장 도원)은 10월 2일 제6회 복운 경로의 날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오른쪽 사진>

고창군 김인호 부군수, 박래환 군의회 의장, 김춘진 국회의원, 임동규·오교호 도의원, 김국재 교육장, 황기석 소방서장, 유덕근 고창농협장과 지역주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경로효친 사상을 앙양하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 온 어르신들의 노고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1부 기념식 및 노인복지 유공자 표창, 백일장 수상자 시상과 2부 문화공연 및 어울림마당 등으로 진행됐다.

도원 스님은 "오늘 하루 즐겁고 건강한 시간 보내시고 행사를 통해 어르신들에 대



한 지역사회와의 관심을 높이고 경로효친 사상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권의 향상과 복지 증진에 힘써 온 오일태(65.고창읍), 이종인(73.공음면), 류형석(76.고수면) 어르신은 모범노인 표창을 수상했고, 이종인(73.공음면), 서경금(72.부안면), 김집동(66.고창읍) 어르신은 실버 백일장 수상자로 선정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송광사 금강산림 10월 2일 첫 법회

11월 20일까지 해남·정우·수불 스님 등 법문

수행의 계절 가을에 불자들의 공부바람을 일으킬 법회가 개최된다. 순천 송광사(주지 무상)는 10월 2일 첫 법회를 시작으로 11월 20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8명의 선지식을 초청하여 법문을 듣는 '제9회 금강산림대법회'를 개최한다. 10월 2일 첫날 입제식 및 첫 강연에서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은 법문을 통해 "무릇 수행자는 지극한 마음과 확고한 실천을 통해 수행정진에 매진하여야 마침내 그 뜻을 이룰 수 있다"며 "모두가 개음에 빠지지 말고 수행정진을 해야 한다"고 당부의 말

을 전했다. 금강산림대법회는 이날 보성스님의 법문을 시작으로 10월 9일 승원 스님(백련사 주지), 10월 16일 해남 스님(통도사 율주), 10월 23일 정우 스님(구룡사 회주), 10월 30일 수불 스님(범어사 주지), 11월 6일 영조 스님(쌍봉사 회주), 11월 13일 법흥 스님(송광사 동당), 11월 20일 정수 스님(봉선사 주지)이 법사로 나선다. 특히 화향일인 11월 20일에는 송광사 소초 사천왕상 점안식 행사도 함께 봉행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현대불교신문·미안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안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안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안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안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안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안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받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안마 극빈촌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안마연방정부 추대 미안마친선대사 김용림·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맑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안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안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안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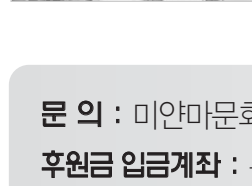
- 신부 출가의식 지원
신부는 미안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행 행사이며 미안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부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피아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교는 미안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서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안마 문화원을 통해 미안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미안마문화원 상명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경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미안마문화원